

이곳은 1876년에 완공된 ‘이쿠노 광산료 마차길’(현재의 ‘은의 마차길’)의 일부입니다. 이 길은 히메지의 시카마항에서 효고현 북부에 있는 이쿠노 광산으로 광공업 관련 자재 등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. 설계자인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(1847-1878년)는 당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머캐덤 공법(쇄석을 사용한 도로 포장 양식)을 채용했습니다. 일본 최초의 산업고속도로로서 은의 마차길은 메이지 시대(1868-1912년)를 대표하는 근대화 산업유산입니다.

이곳에서는 약 100m에 걸쳐 벚나무로 둘러싸인 400년 넘는 연못을 따라 마차길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. 또한, 도로 양쪽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큰 돌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은의 마차길입니다.